■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결과 의미

주류의 패배…전대 광주 표심 보였나

'인물' 보다 '계파' 우선

당권 중심으로 표 행사

11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 광주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11일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인 김재균 의원이 선출되면서 향후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특히 오는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비주류 지지세가 강세를 보이면서 당권 경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밑바닥 당심, '비주류' 승리 안겨=애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결과는 10·3 전당대회에 앞서 주류와 비주류 간 대결구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경선결과를 통해 광주의 표심도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가의 주목을 받았었다.

김재균 의원의 승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나타났던 당내 주류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이 '반 주류 성향'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분위기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표출됐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당시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집단 탈당 등의 후유증이 컸던데다 주류 후보 위주의 '공천 드라이브'에 염증을 느낀 당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같은 공천과정에서 당내 목소리를 높여 공천 탈락자 등으로부터 반감을 샀던 강 의원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발 표'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대의원들에게 강 의원 지지 오더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표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밑바닥 당심이 결국 이번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권 경쟁 영향 불가피=민주당 광주시당위원정 경선결과는 밑바닥 당심도 주요 원인이지만,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비주류 계열의 당권 주자들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임 김재균 위원장도 비주류 지지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선거구도를 당내 주류 대 비주류 구도로 몰아갔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아닌 '인물'을 내세우며 대의원을 공략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인물'보다는 '계파'가 우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국 대의원들이 '당권' 중심으로 표를 행사한 셈이다.

실제로 경선이 시작될 때만 해도 김재균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은 박주선(동구)의원과 쇄신연대 소속 김영진(서구 을) 의원 밖에 없었고, 강의원의 지지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손학규 전 대표 등을 지지하는 비주류 계열 대의원들의 표가 김 의원 쪽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손 전 대표는 최근 광주·전남에서 3박4일 동안 머물며 바닥 표를 다진 것이 이번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당심은 당연히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광주의 지지를 이끌어낸 후보가 최후의 승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당위원장 선거는 지역에서 개인적 친분 등 1차적인 네트워크가 상당부분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시당위원장 경선결과를 전당대회 표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단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결과만 본다면 주류가 비주류에게 패한 것"이라며 "대세를 자신했던 강 의원은 정치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호남에 좀 더 잘해야"

姜시장 당권주자들에 쓴소리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주당 당권주자들 앞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광주·전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개편대회 및 당권주자 합동연설회에서 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최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광주 문화수도 사업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 계신 당권 주자들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면 호남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민주당에 대비하자면 '약무호남 시무민주당, 약무호남 시무 2012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시장의 축사는 민주당에 많은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광주의 민심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쇄신과 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합종연횡 윤곽

백원우 후보 사퇴…486 단일화 여부 주목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경쟁전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백원우 후보의 사퇴로 486 주자들의 단일화 여부는 후보 간의 합종연횡은 물론 당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부산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의 정체성과 진로 등을 놓고 계파별 공동 전선을 펴는 등 거친 공방을 벌였다. 우선, 구 당권파 486 주자인 최재성 후보와 친노 진영의 백원우 후보는 비주류인 정동영, 천정배 후보에 대해 대립각을 나타냈다.

반면, 박주선, 천정배, 조배숙 후보 등 비주류 성향 주자들은 구 당권파를 대표하는 정세균 후보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또한, '빅 3'인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후보는 상호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의 합종연횡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구 당권파의 핵심이었던 최재성 후보와의 합종연횡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천정배 후보와의 연대가, 손학규 후보는 박주선 후보와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인영 후보는 정동영, 손학규, 천정배 후보 등의 부분적 지지를 받는 '다자간 합종연대'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조배숙 후보는 쇄신연대 등 비주류 진영은 물론 비주류 성향 당권 주자들의 측면 지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주선 후보의 경우, 정동영, 정세균 후보 등 타 당권주자들의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후보의 12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486 주자들의 단일화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백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합동 유세에서 486 후보 단일화를 위한 사퇴 결심을 밝혔다. 백 의원의 사퇴로 486 주자들은 최재성, 이인영 후보만 남게 됐으며 약속대로라면 조만간 단일화 수순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단일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근태 계열인 이인영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손학규, 정동영 후보 측의 일부 지지를 받은 데다 최재성 후보가 탈락할 경우, 정세균 후보를 제외하고 구 당권파 진영의 후보군이 사실상 전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86 주자의 후보단일화 여부는 후보 간의 합종연대 등 당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86 주자가 한 명이 완주하느냐와 두 명이 완주하느냐에 따라 1인 2표제의 특성상, 합종연횡 구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심·민심 하나로…화합형 리더 되겠다"

김재균 시당위원장 "당원간 간극 치유에 노력" 강조

김재균 신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12일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원과 함께 시당을 운영해 가는 '화합형 시당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은 기본적으로 당심이 가장 잘 확인된 선거였다"며 "궂은 날씨에도 무려 97%라는 대의원 참석률을 보인 것은 상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과 민주당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변화를 위해 전임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많은 대의원이 동의하면서 승리를 이끈 것 같다"라며 "특히 대의원들은 두 후보의 정치 스타일 중 누가 더 화합형 리더인가를 보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승리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56%의 지지뿐 아니라 상대 후보를 선택한 46%의 당심도 충분히 헤아려 화합하고 일 잘하는 시당을 만들 것"이라며 "빗속을 뚫고 모여주신 443명의 대의원의 열정과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을 거치면서 생긴 당원 간의 간극을 조속히 치유하고 해결하기 노력할 것"이라며 "화합과 소통으로 흔들리는 당심을 바로잡고, 진정한 연대를 만들어 떠나는 민심을 잡아 당심과 민심을 똘똘 하나로 뭉쳐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10·27 재보선은 '초미니 선거'

광주·전남 2곳 포함 5곳뿐

10·27 재·보궐선거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초미니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광주·전남 2곳 등 모두 5곳에 불과하다. 기초단체장 1곳(광주 서구청장), 광역의원 1곳(경남 거창군 제2선거구), 기초의원 3곳(곡성군 가선거구, 부산 사상구 나선거구, 부산 사상구 라선거구)이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광주 서구청장 보선후보 10명을 비롯해 모두 25명이다.

10월 재보선은 9월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서만 치러지는데 재보선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확정판결은 연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구도 없다.

만약 10월 재보선 대상지역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번 재보선은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역대 최소 규모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